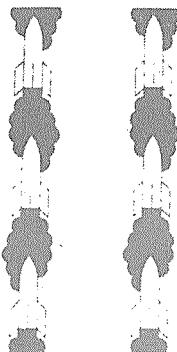


## 電子工業日誌



〈1989. 12. 1 ~ 12. 30〉

12. 1 : 工振廳, EC 통합에 따라 '92년까지 제정될 4,000여종의 「유럽單一規格」의 표준안전기준, 위생기준 등을 상향 조정키로.

12. 2 : 商工部, 경밀전자, 新素材 등 63개 업종을 尖端產業 업종으로 지정告示하고 특별設備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.

12. 6 : 科技處, 西獨·英·헝가리·佛 등 유럽국가들과의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과학자 교류 및 신소재 가공기술 자동화 기술 등 첨단산업 기술분야의 공동연구를 추진키로.

12. 6 : KIST, 투과성 電導性 접착력 등 物性이 우수한 투명도 電性 필름 제조기술을 개발했다고.

12. 6 : 貿協, 「주요 경쟁국의 수출입 실적」에 따르면 '89년 10월 말 현재 한국의 무역수지(통관기준) 흑자는 6,000만 달러, 대만은 117 억 7,000만 달러, 홍콩은 3 억 달러로 집계돼 우리나라가 가장 낮다고 분석.

12. 8 : 政府, '92년까지 완료예정인 5인승 다목적 경항공기(창공91) 개발에 이어 '93년부터는 KEP 사업과 연계한 중급항공기를 개발키로.

12. 8 : 科技院, 비행체의 초보적인 기본설계에 쓸 수 있는 CAE(컴퓨터 엔지니어링) 시스템을 개발했다고.

12. 11 : 商工部, 「전자업계 공장자동화실태」에 따르면 노사분규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87년 31%에 그쳤던 업계의 공장자동화추진 비율이 '88년 38%로 높아진데 이어 '89년 44%, '90년에 53%까지 올라설 전망이라고.

12. 12 : 貿公, 퍼스컴 등 정보산업제품의 對美수출을 촉진키위해서는 OEM 방식보다는 자체브랜드에 의한 수출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.

멀리 떨어진 외국과의 국제통신의 품질향상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'90년부터 해저 光케이블망을 구축키로.

12. 20 : 科技處, 최근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선진국들간의 국제협력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우리나라도 연구개발의 국제화를 적극 밀고 나아갈 계획이라고.

12. 20 : 產業研, '90년 세계경제가 '89년의 3.5%보다 다소 낮은 3.1%의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무역량 증가율도 '89년의 7.1%보다 줄어든 5.2%로 전망.

12. 22 : 科技處,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.

12. 27 : 科技研, 이트롭게 산화물초전도체를 이용, 넓은 대역의 光을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고성능 光檢知器를 개발했다고.

12. 27 : 工振廳, FX사업의 機種 결정을 계기로 국내 항공산업이 본격화 할 것에 대비 航空機 부품 생산을 위한 품질認證制를 실시키로.

12. 28 : 遷信部, '90년이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서비스 수요구조가 전화를 비롯한 기본서비스는 문화되는 대신 비디오텍스 등 尖端분야는 급신장할 것으로 전망.

12. 29 : 日通產省, 輸入大國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촉진 稅制의 실시. 1,400 품목에 대한 關稅 철폐, 수입정보 관련정보망의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수입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.

12. 30 : 商工部, 「'90년 수출입 전망」에 따르면 中華학제품 수출은 '89년보다 7.7% 늘어난 371억 5,000 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 중 비중이 56.3%에 달하겠지만 가정용 전자금속제품 컨테이너 비료 등 4개 업종은 '89년보다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.